

Two thousand years ago, the eternal God entered the womb of a virgin, where his human body grew for 9 months. His mother, Mary, gave birth to the Son of God, who took the flesh and blood of man. That demands a response. And people respond to Christmas in all sorts of different ways. Some people love shopping for Christmas gifts while others detest the commercialism of Christmas. Some look forward to the holiday it provides and the chance to party and gather with family or friends. Others dread its arrival because it reminds them of loved ones no longer with them or of their dysfunctional family or the loneliness of having no family. Christians respond to the incarnation with worship – a special season of worship, Advent, when we celebrate the greatest event in history, the birth of Jesus Christ to be our Saviour. If people respond to Christmas in diverse ways now, it was even more the case at the time of the birth of Jesus. At his birth, angels sang, shepherds worshipped, and Mary pondered what everything meant. At the same time, a group of wise men embarked on a journey to find the newborn child. Sadly, there were far more troubling responses, as we shall see.

2000 년전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한 처녀에게 잉태되어 엄마의 뱃속에서 9 개월동안 인간의 몸으로 자랐습니다. 그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반응을 요구합니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에 대해 다양한 반응들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선물들을 사는 것을 즐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상업화된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주는 휴가, 그리고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모이고 파티를 할 수 있는 기회 때문에 기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곁에 없거나 가족에 문제가 있거나 가족이 없는 외로움을 상기시키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성육신에 대해 예배로 반응합니다 – 재림절은 역사상 가장 대단한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려고 태어난 것을 기념하는 예배를 위한 특별한 시즌입니다. 지금도 크리스마스에 대한 반응이 다양하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때에는 더욱더 다양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천사들은 노래했고, 목자들은 예배했고, 마리아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곰곰히 생각 했습니다. 같은 시각 동방박사들은 이 새로 태어난 아이를 찾기 위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보시겠지만 슬프게도 더 난처한 반응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The Christmas carol, “We Three Kings of Orient Are” has flaws that begin to appear even in the title. For a start, the magi were not kings, and Matthew never says that there were three of them. It is assumed that because they brought three gifts, there must have been three of them. Their entourage that travelled up to a thousand miles probably included soldiers and servants as well as a number of Magi. These Magi were wise men – not kings, but counsellors to kings. In the Old Testament, Daniel and his friends were magi – educated men, seeking the truth, trained to counsel and advise King Nebuchadnezzar of Babylon. The magi who came to Jerusalem seem to have been learned, noble and wealthy. When they arrived, they explained their journey, saying, “Where is the one who has been born king of the Jews? We saw his star in the east and have come to worship him” (Matthew 2:2). One theory suggests that the star was an exploding supernova that slowly traversed the sky. The magi studied the heavens in a day when the boundary between astronomy and astrology was vague. The Bible forbids astrology. Isaiah mocks “stargazers who make predictions month by month” but cannot save themselves (Isaiah 47:13-15). Yet God reverses expectations and chooses to speak to stargazers through a star. Stars had significance for these men. God used a star to speak to them. To this day, God speaks in a language that gets the attention of people. Why would God want to speak to these pagans who served a pagan king? God seeks sinners. Christianity is not a religion for “good people” – it is for sinners who listen when God calls.

크리스마스 캐롤 중 “We Three Kings of Orient Are”는 제목에서부터 잘못된 점이 보입니다. 우선 동방박사들은 왕들이 아니었고 3 명이었다고 마태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들이 세가지 선물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3 명이었다고 추정되는 것뿐입니다. 1000 마일정도를 여행해온 이 수행단에는 군인들, 하인들 또 몇 명의 동방박사들도 포함돼 있었을 것 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현자들이였습니다 – 왕이 아니고 왕의 상담자였습니다. 구약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박사들이었습니다 – 배운 사람들이었고, 진리를 추구하며,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상담을 해주고 조언을 하도록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온 박사들은 교양있고 훌륭하며 부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도착해 그들의 여정을 이렇게 설명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마 2:2). 한가지 이론은 이 별은 폭발하는 초신성이 하늘을 천천히 가로질렀다는 것 입니다. 이 박사들은 천문학과 점성술사이의 경계선이 확실하지 않았던 시대에 하늘을 연구했습니다. 성경은 점성술을 금합니다. 이사야는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이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며 무시 했습니다 (사 47:13-15).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상을 깨시고 “별을 보는 자들” (점성가)에게 별을 통해 말씀하기로 하셨습니다. 별들은 이 사람들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별을 사용해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언어로 말씀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교도 신을 섬기는 이교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찾으십니다. 기독교는 “좋은 사람들”을 위한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듣는 죄인들을 위한 것 입니다.

God called the magi and they travelled a great distance, following the star for long months. As wise men, they probably had some of the Old Testament, the words of prophets such as Daniel, to guide them. If they knew of Daniel, they knew that he had predicted the birth of a royal deliverer in Israel. Then they saw a mysterious star and followed it to Jerusalem. The arrival of their entourage was noticed and it quickly came to the attention of King Herod, especially considering their question, “Where is the one who has been born king of the Jews?” Imagine what a member of Herod’s household who heard such a question would have thought. What could such a question mean? How was it that no one in Jerusalem, the capital city, knew of this royal birth?

하나님께서 박사들을 불렀고 그들은 별을 따라 몇 달 동안 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지혜로웠기 때문에 아마 구약의 다니엘 같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가이드로 삼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알았다면 다니엘이 이스라엘에서 메시아(royal deliverer)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는 것을 알았을 것 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신비로운 별을 보고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갔습니다. 이 수행단의 도착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고, 특별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는 질문때문에 곧 헤롯왕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헤롯의 가족 중 이 질문을 들은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이 질문은 무엇을 뜻할까? 왜 수도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중 아무도 이 왕족의 출생에 대해 알지 못했을까?

1. Herod Responds to the Report of the Magi

When Herod heard that the wise men were seeking “the one who has been born king of the Jews”, he saw this as a threat. He was greatly disturbed. He had been king of the Jews about 30 years by this time. He was old and died not long after Jesus’ birth. Herod was a very gifted man, skilled as a soldier and in politics. He excelled at famine relief and building projects, but he became cruel and paranoid later in life and spared no effort to retain power. Perpetually fearing plots on his life, he even executed his wife Mariamne and three of his sons. His order to kill all the male babies of Bethlehem (2:16), in the hope of killing Jesus, is wholly consistent with history’s portrait of Herod, a talented but violent and immoral ruler. Matthew says that when Herod became disturbed “all Jerusalem” became disturbed with him (2:3). Matthew is foreshadowing the future of Jesus, who arouses hostility and resentment, upheaval and suffering. So we understand the lack of enthusiasm among the people. Anxiety and fear paralysed them, as they lived under the rule of the tyrant,

Herod. Yet some of the people were awaiting a deliverer. They should not be indifferent to the magi's report. After all, their arrival seemed to fit the prophecies. For example, in his fourth oracle, Balaam had prophesied, "A star will come out of Jacob; a sceptre will rise out of Israel" (Numbers 24:17). There was reason for the learned and even for attentive commoners to give full attention to the magi.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는다는 것을 들었을 때 헤롯은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는 심히 불안해 했습니다. 지금까지 헤롯은 30년 정도 유대인의 왕으로 지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았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뒤 얼마 되지 않아 죽었습니다. 헤롯은 굉장히 재능이 많은 사람이었고 군인으로서, 그리고 정치에 능숙했습니다. 헤롯은 기근 구조와 건설계획에 뛰어났지만 나중에는 잔인해졌고 피해망상적이 되어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끊임없이 살해당하는 음모를 두려워하며 그의 아내 마리암네와 그의 세 아들마저 처형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길 바라며 내렸던 베들레헴과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 (2:16)은 역사가 그리는 헤롯의 모습, 재능이 많지만 난폭하고 비도덕적인 왕, 과 일치합니다. 헤롯이 소동하자 "온 예루살렘"이 그와 함께 소동했다고 마태는 말하고 있습니다 (2:3). 마태는 적대감, 분노, 격변 그리고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예수님의 미래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열정이 부족한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폭군인 헤롯의 통치아래 살았기 때문에 불안감과 두려움이 그들을 마비 시켰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의 보고를 무관심하게 받아들이면 안되었었습니다. 마침내 박사들이 도착했다는 사실은 예언들이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람은 그의 네번째 신탁에서 이렇게 예언 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 (민 24:17). 배운 사람들은 물론 평민들 중 주의를 기울인 사람들도 동방박사들에게 집중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Herod called in two groups of experts to question them about the magi's report – the chief priests and the scribes (or teachers of the law). The scribes were conservative teachers of Scripture, bent on preserving traditional Jewish culture. The chief priests, on the other hand, were Sadducees who were willing to accommodate Roman authority and Greek culture to retain their wealth and power. Herod called these rivals together to discover "where the Christ was to be born". If these two groups should agree on the answer, it had to be true! In fact, they did answer together and, citing Micah 5:2, correctly replied, "In Bethlehem in Judea". They know where the prophecy is found and they know that the prophecy comes from God. Indeed they quote the prophecy to Herod: "But you, Bethlehem.....are by no means least among the rulers of Judah; for out of you will come a ruler who will be the shepherd of my people Israel" (2:6). Yet after the scribes and chief priests give their answer, we hear nothing more of them. They expected a deliverer, and here are reports that fit the prophecy. Yet, Matthew implies, they do nothing. They do not rejoice. They do not go to Bethlehem to worship this shepherd and ruler or even to investigate the report. They simply answer the king and go home. The apathy of the teachers of the law and chief priests is pathetic but all too typical. "Religious" people were and are often the last to receive Jesus. If the pagans in places like Tyre and Sidon or Sodom had seen Jesus' signs, if they had heard his preaching, Jesus says they would have repented (Matthew 11:20-24). But the religious people saw no need of repentance. It was true then and remains all too true today. Sometimes those who know the most about the faith in their minds know it least in their hearts.

헤롯은 전문가들 두 그룹 –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법을 가르치는 선생들) – 을 불러 동방박사들의 보고에 대해 질문 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보수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들이었고 유대인의 전통 문화를 보존하는 것에 열중했습니다. 반면에 대제사장들은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로마의 권위와 그리스의 문화를 수용하는 사두게파 였습니다. 헤롯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는지" 알아내려고 이

경쟁자들을 불렀습니다. 이 두 그룹의 답이 일치하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미가 5:2 을 인용하여 같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옳게 답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 예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알았고 또 이 예언이 하나님께서 온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 예언을 헤롯에게 말해줍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2:6). 하지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답을 한 뒤로 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더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원자를 예상했고 그 예언에 맞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암시합니다.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목자와 지도자를 경배하러 베들레헴으로 가지도 않았고 박사들의 보고를 더 들여다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왕에게 답변을 드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법을 가르치는 선생들과 대제사장들의 무관심은 정말 한심 하지만 너무나도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흔히 “종교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마지막으로 영접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만약 두로와 시돈 또는 소돔에 있는 이교도인들이 예수님의 표징을 보았더라면, 그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더라면, 그들은 회개했을 것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 11:20-24). 하지만 종교인들은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가끔 믿음에 대해 머리로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 가슴으로는 가장 알지 못합니다.

Herod took the magi's message politically. The phrase “king of the Jews” sounded like a threat, like the announcement of a potential rival, and Herod determined to kill him. So Herod called the magi in to question them. He questioned them closely and repeatedly until he ascertained “the exact time the star had appeared” (2:7). Then he sent them on their way, asking them to report back “so that I too may go and worship him” (2:8). Confident that he had deceived the magi, Herod sent them off without an escort. The star reappeared and led them to the house in Bethlehem where the little family had by this time settled. The magi arrived and bowed in reverence. This doesn't mean that they knew everything about Jesus identity – that he is the Son of God, the second person of the Trinity. But they did bring honour and worship to this royal baby. Having bowed, they opened treasure boxes and brought out gifts of gold, frankincense and myrrh.

헤롯은 동방박사들의 말을 정치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구절에 위협을 느끼고 잠재적인 경쟁자로 보았기에 헤롯은 그를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동방박사들을 불러 심문 했습니다. 헤롯은 그들에게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2:7) 듣기까지 자세히, 또 반복적으로 심문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보내고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다시 돌아와 보고하라고 부탁드립니다 (2:8). 동방박사들을 속였다고 확신한 헤롯은 사람을 붙이지 않고 그들을 보내줬습니다. 별이 다시 나타났고 베들레헴에 예수님의 가족이 정착해 있는 집으로 동방박사들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도착하여 존경함으로 엎드려 절 하였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모든 것을 –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삼위일체 중 두번째 라는 것 – 알았기때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이 아기에게 영광과 경배를 올려 드렸습니다. 절을 한 뒤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Some theologians explore the symbolic meaning of each gift to declare the deity of Christ and to foretell his death on the cross. Of course, it was God who led them to bring the gifts they brought, but these wise men from the east did not choose their gifts with Old Testament prophecies in mind. No, they brought them with their understanding of court life in mind. They knew that when a man meets a king, he brings gifts. Their gifts were costly and grand. For thousands and thousands of years, gold was the metal of kings, beautiful, rare and expensive. Frankincense and myrrh were valuable spices and perfumes. As a perfume, a bottle of myrrh could cost \$10,000 or more in today's terms. The magi simply brought Jesus the best gifts they could find. By custom, the king usually gave something back to his visitors (1 Kings 10:1-13). This royal family had nothing to give –

at that time. Indeed, they may well have used these gifts to pay for their escape to and stay in Egypt when Herod sought to kill Jesus. But later, Jesus would have a gift to give to all who worship him. 어떤 신학자들은 각 예물들이 그리스도의 신 되심, 그리고 그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상징하는 의미들에 대해 연구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예물들을 가져오게 인도 하셨지만 이 동방박사들은 구약의 예언을 생각하며 예물을 고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궁전 생활을 염두에 두고 이 예물들을 가져왔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사람이 왕을 만날 때 예물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예물은 값지고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답고, 진기하고 값비싼 황금은 몇 천년 동안 왕들의 금속이었습니다. 유향과 몰약은 값진 향신료와 향수 였습니다. 몰약은 한 병에 오늘날의 \$10,000 정도, 또는 더 비싼 향수 였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그저 자신들이 찾을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을 예수님께 가져 온 것입니다. 관습대로 하면 보통 왕도 방문객에게 무언가를 보답으로 줍니다 (열왕기상 10:1-13). 이 왕족(예수님의 가족)은 그 당시 이들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이 예물들을 예수님을 죽이려는 헤롯을 피해 이집트로 피난해 있을 때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예배하는 모든 사람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2. The Response to Christ in Four Parts

The characters in Matthew's account represent the main types of response to Jesus to this day. The varied people who encounter Jesus in the pages of the gospel resemble people in all places, at all times.

마태의 기록에 나오는 인물들은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주된 반응들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나와있는 예수님을 만난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느곳에서나 어느때나 항상 비슷합니다.

Herod is an enemy of God, an agent of Satan, an antichrist in the strict sense of the word. When he tries to kill Jesus, he does Satanic work. Herod is a false king, trying to kill the true King, murdering whomever gets in his way. But God protects the Christ child. Herod's actions remind us that rebellion against God is irrational. It is folly to fight God, but sin makes people foolish.

헤롯은 하나님의 적, 사탄의 일꾼, 단어 대로 정확하게 말하자면 적그리스도 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그는 사탄의 일을 하는 것 입니다. 헤롯은 참된 왕을 죽이려 하는 거짓 왕 이며 그의 앞을 가로막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살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기 그리스도를 보호하십니다. 헤롯의 행동은 하나님께 반란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지만 죄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듭니다.

Not many of us personally know people who, like Herod, hate God and would destroy Christ and his church, if possible. Indifference and ridicule are much more common in our society. But there are God-haters, atheists and persecutors who would wipe out Christianity if they could. The Bible never tells us to fight them, but we should expect them and stand firm in the faith, for we know that the Lord will overcome them.

헤롯같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가능하면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파괴하려는 사람들을 우리는 대부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무관심과 조롱이 훨씬 팽배합니다.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무신론자들, 그리고 박해자들은 존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맞서 싸우라고 하지 않고 그들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 안에 꿋꿋이 서 있으라고 말씀 합니다.

Sadly, the hatred of Herod is only the first failed response. The people of Jerusalem were troubled by the word of Jesus' birth. Their question was "Could this somehow lead to our harm?" It is a

sensible question. Herod was capable of killing at random, as too many dictators are. Still, we cannot live by fear. Even in the face of threats, the Bible says, "Do not fear what they fear; do not be frightened" (1 Peter 3:14). Fear must not govern our decisions. It is all too easy to let fear of disapproval or financial loss or relational strife govern our decisions, but we must let the truth guide us. This is what the people of Jerusalem missed. They asked, "What can go wrong?" They failed to ask, "What is my right response to this situation?"

애석하게도 헤롯의 증오는 잘못된 반응 중 첫번째일 뿐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불안해 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게 될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헤롯은 많은 폭군들이 그렇듯이 무작위로 사람들을 죽일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두려움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험박 앞에서도 성경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벧전 3:14) 라고 합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판단을 지배하면 안됩니다. 반감, 재정적 손실, 가족간의 불화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판단을 지배하게 되기가 너무 쉽지만 우리는 진리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잊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잘못 될 수 있을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묻는 데에 실패 했습니다.

The chief priests and teachers of the law also failed. They had expert knowledge, which they presented to others, yet they did not use that knowledge to direct themselves. They served Herod, quoting the Old Testament Scripture, but they did not rise to serve the Lord. They were satisfied to quote Scripture and go home. They should have joined the magi and hurried to Bethlehem. If we know the truth, we must act on it. People with knowledge and education are always tempted to rest content in that knowledge. But it is never enough to know the truth. If we truly know, we act. If we know who Jesus is, we worship him.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실패 하였습니다. 이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이들을 가르쳤지만 자기 자신을 바른 길로 이끄는 데에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약을 인용하며 헤롯을 섬겼지만 주님을 섬기기 위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집에 가는 것에 만족 했습니다. 그들은 동방박사들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가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면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지식이 있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항상 그 지식에 만족하고 더 나아가지 않을 유혹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아는 것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알면 실천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예수님께 경배하게 됩니다.

This is where the magi show the way. They know one thing, namely that the king of the Jews had been born. They travelled to see the baby king. They left work, home and family to follow a star for many months. They embarked on a perilous journey through alien lands. They brought the most expensive gifts they could find. When they arrived, they worshipped, then gave gifts. They knew little, but acted on what they did know. An expert in juvenile behaviour explained the difference between boys and girls in early high school years this way. Give a group of girls a task to perform and they will spend most of their time deciding who should do what. Give a group of boys a task and they will start doing something, anything, right away. After they run into their first serious obstacle, they stop to think. If that expert is right, we might say that the magi acted like a group of Year 8 boys. They didn't know much but they got to work. When they heard the king had been born, they moved at once, in costly devotion. And they brought costly gifts to Jesus, yet I imagine they took delight in it. They gave what was natural to them, what flowed from their lives – they gave gold and perfume from the royal court where they lived. Their action is an example for us. King David once said of his giving that he would not give the Lord that which "costs me nothing" (1Chronicles 21:24). We could add, "I will give that which causes me joy". Paul reminds us that God loves a cheerful

giver (2 Corinthians 9:7). We should pray that we will be able to see what gift we can offer to the Lord. It should be our goal to give what is best of ourselves to the Lord, like the magi.

여기서 동방박사들이 바른 길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것 한가지 밖에 모릅니다. 그들은 아기 왕을 보기 위해 여정을 떠납니다. 몇 달 동안 별을 따르기 위해 일, 집, 그리고 가족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이방 땅을 거친 위험한 여정을 시작 했고 찾을 수 있는 것 중 가장 비싼 예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이 도착 했을 때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아는 것은 별로 없었지만 그 아는 것을 실천 했습니다. 청소년 행동에 대한 전문가는 중학교 초반의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의 행동의 다른 점에 대해 이렇게 설명 했습니다. 여자 아이들에게 과제를 주면 누가 무엇을 할 것인지 정하는데 시간을 가장 많이 보냅니다. 남자 아이들에게 과제를 주면 바로 무엇이든지 하기 시작 합니다. 첫 장애물이 나타나면 그때 멈춰서 생각을 합니다. 이 전문가가 만약 옳다면 우리는 동방박사들이 중학교 2 학년 남자아이들과 같이 행동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별로 없었지만 바로 실천 하기 시작 했습니다. 그들은 왕이 태어났다고 들었을 때 많은 것을 포기하고 헌신적으로 바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비싼 예물을 예수님께 들고 갔지만 저는 이들이 기쁨으로 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동방박사들은 그들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예물을 – 그들이 사는 궁전에서 나온 황금과 유향을 – 드렸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 됩니다. 다윗 왕은 자신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역대상 21:24) 라고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더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상기시켜 줍니다 (고후 9:7). 우리는 우리가 어떤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지 볼 수 있게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동방박사들과 같이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There is potential paradox here. When we give of ourselves, we often give what is delightful and natural and easy for us. But if we truly delight in it, we often work hard to make the gift an excellent one. A gifted cook or chef gives to others by preparing meals that are delicious and nutritious. An excellent cook may expend great effort to make a good meal great, by making it as pleasing to the eye as to the body. Like the magi, we should give what is natural, what is joyful, and what is costly to Jesus Christ, our Saviour and Lord.

이것은 역설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내어줄 때 보통 우리는 기쁘게 줄 수 있고 자연스럽게 편하게 나오는 것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기쁨을 느끼면 이 선물을 훌륭한 선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재능이 있는 요리사는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준비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나눔을 합니다. 훌륭한 요리사는 정성을 쏟아 좋은 음식을 보기에도 좋게 만들어 굉장한 요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오고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값진 것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야 합니다.

In a way, when we give to Jesus it is a pure gift. The magi gave to the baby Jesus but he gave nothing back, at that moment. It can sometimes feel as though we give to the church or Christian causes and get nothing back either. But such a thought is shortsighted. Of course, Jesus doesn't return gifts in kind. No matter what the prosperity gospel preachers may say, Jesus does not give you back \$2 for every \$1 you give him. He gives something infinitely better – he gives himself. The gifts the magi gave Jesus probably helped preserve his life. They were probably used by Joseph and Mary to take the baby Jesus to Egypt. So the magi helped preserve Jesus' physical life. But Jesus gave them eternal life – sins forgiven, new life in relationship with God and the hope of heaven. He more than matched their gift.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것은 순수한 선물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 순간에는 이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나 기독교인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었지만 아무것도 보답으로 돌려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멀리 바라볼 줄 모르는 것 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선물을 주시지 않습니다. 번영복음 전도사가 어떤 말을 해도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드리는 \$1 에 \$2 로 돌려주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것보다 훨씬 좋은 것 - 예수님 자신 - 을 주십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예물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목숨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 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갈 때 아마 사용하였을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육신의 생명을 지켜내는 것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 죄사함,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새로운 삶, 그리고 천국 소망을 주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준 예물보다 훨씬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He gives us the gift of eternal life, too. The gifts we offer in God's name resemble the gifts given within a joyful family. Children offer gifts to their mother and father to show how much they love them. Parents are always the prime givers. They do not need the gifts their children give, but they love the gifts because of the love they represent. May it be so for all of us, whatever gift we give the Lord. May we delight in giving what the Lord delights in receiving. The magi gave both themselves and their resources. That is what all followers of Jesus should do. Whether we worship, serve, evangelize, lead, pray, teach, do acts of mercy or give financially, our gifts cost us something. There is both sacrifice and pleasure in giving to the God who loves us and gave himself for us. Wise men and wise women still seek him. May our purpose and joy in life be to worship and adore and give to the Lord who has given us so much more in his Son, Jesus Christ.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화목한 가족 안에서 주고받는 선물과 비슷합니다. 아이들은 어머니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 선물을 줍니다. 주로 선물을 주는 것은 항상 부모님 입니다. 부모님은 아이들이 주는 선물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 선물들의 의미 때문에 기뻐합니다. 우리도 어떤 예물을 드리든지 이렇게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받기 기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을 즐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은 그들 자신과 그들의 재물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하거나 섬기거나 전도하거나 인도하거나 기도하거나 가르치거나 선행을 베풀거나 재정적으로 드릴 때 우리는 이 예물들에 대한 대가를 치룹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자신을 내주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에는 희생과 즐거움이 둘다 있습니다. 현자들은 예수님을 찾을 것 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와 기쁨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며 드리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Amen